

중·고등학교 <음악> 교과 수행평가를 위해 악기를 배워야 할까요?

올해 중학교에 들어가는 예비 중1의 학부모입니다. 중학교는 물론 고등학교까지 예체능 교과에서 수행평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라고 들었습니다. 저희 아이는 음악을 꺼리고 다룰 줄 아는 악기도 없어 벌써부터 <음악> 수행평가를 어찌 치를지 걱정하고 있네요. 지금이라도 악기를 하나 선택해 배워놔야 할까요? 만약 그렇다면 빠른 시간 내에 배워 연주가 가능한 악기도 추천 부탁드립니다.

_안효정(42·서울 서초구 잠원동)

수행평가는 대부분 교과 시간에 배우고 익힌 악기를 활용해 치러집니다.

중·고등학교 <음악> 교과의 수행평가는 일반적으로 수업 시간에 다룬 악기의 연주와 작곡, 가창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서울 용문고 이해주 교사는 “학교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대다수 중·고등학교는 악기 연주 수행평가 시 <음악> 시간에 배우고 익힌 악기를 평가한다. 최근에는 코로나 사태로 비말 발생을 막고자 드럼 같은 타악기나 칼림바 등의 악기 수업이 많다. 악기 연주는 수준급 연주 실력이 아닌 박자와 리듬 등 기초적인 부분을 평가하며 가창 또한 음정과 박자 정도를 중요하게 다룬다. 작곡의 경우 악보를 보고 기본적인 음계와 음표를 읽어낼 수 있다면 충분하다”고 조언합니다.

간혹 개인별 자유 악기를 평가하는 학교가 있으니 진학할 학교의 홈페이지를 방문해 지난해 <음악> 수행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해보기를 추천합니다. 이 교사는 “자유 악기로 평가하더라도 악기의 종류에 따른 유불리는 없다. 악기를 자신감 있게 연주하면 충분하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악기 연주 수행평가를 위해 따로 시간을 내어 악기를 배울 필요까진 없습니다. 일선 교사들은 초등 시기에 익힌 리코더나 단소 정도면 충분하다고 전합니다. @

MORE TIP

중학교 <음악> <미술> <체육> 교과의 평가는 5단계(A~E)로 이루어지는 다른 교과와는 달리 원점수 80점 이상이면 A, 80점 미만 60점 이상은 B, 60점 미만은 C와 같이 3단계로 학생부에 기록됩니다.

취재 김한나 리포터 ybnni@naeil.com

논술 전형에서 언급되는 실질 경쟁률이 궁금합니다.

예비 고3 학부모입니다. 올해 입시를 앞두고 작년 입시 분석 기사들을 보고 있는데요. 논술 전형의 경우 경쟁률이 매우 높아 보이지만 실질 경쟁률은 다르다는 대목이 눈에 띄네요. 실질 경쟁률이 무엇인지, 학과별 실제 경쟁률을 어떻게 분석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_박은영(51·서울 양천구 목동)

대학이 요구하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해 실제 논술 시험에 응시한 인원 기준으로 산출한 경쟁률입니다. 서류 지원자만 집계한 최초 경쟁률보다 줄어듭니다.

입시 경쟁률과 관련해 최초 경쟁률과 실질 경쟁률, 최종 경쟁률 등이 언급됩니다. 최초 경쟁률은 모집 인원 대비 서류를 접수한 지원자의 비율을 뜻합니다. 실질 경쟁률은 대학별 입시 요강에 따라 논술 응시 여부와 수능 최저 기준 충족률을 반영한 수치입니다. 이외에 추가 합격까지 반영해 최종 경쟁률을 발표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강대 2022학년 입학 가이드북에서 컴퓨터공학전공의 경쟁률을 살펴보면, 최초 경쟁률은 109.17:1인 데 비해 최종 실질 경쟁률은 30.61:1입니다. 최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논술고사를 포기하거나 수능 성적이 높아 논술 최저 기준을 정시 전형을 준비하는 경우 실질 경쟁률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에듀플러자 조미정 대표는 “내신이나 비교과 활동이 부족해 논술 전형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다. 막연하게 수능을 잘 볼 것이라는 기대로 논술 전형에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경쟁률의 숨은 뜻은 자격을 갖춘 수험생들이 얼마나 있는가다. 동일 대학 안에서 진학 학과를 결정할 때 모집 인원이나 실질 경쟁률은 참고할 만하다”라고 덧붙입니다. @

계열	모집 단위	모집 인원(명)	지원 인원(명)	최초 경쟁률	논술 응시+ 수능 최저 충족 인원(명)	합격 인원(명)	최종 실질 경쟁률* (추가 합격 반영)	총원율 (%)
자연	컴퓨터공학전공	18	1,965	109.17:1	704	23	30.61:1	27.8

출처 서강대학 2022학년 입학 가이드북

* 최종 실질 경쟁률(추가 합격 반영)은 논술 응시+수능 최저 충족+추가 합격 인원을 반영함

MORE TIP

동국대 서강대 이화여대 인하대 중앙대 한국외대 등은 최초 경쟁률과 실질 경쟁률을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학과 모집 인원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올해 모집 정원을 감안해 참고하기 바랍니다.

취재 이지연 리포터 judylee@naeil.com



〈내일교육〉 편집팀이 매주 독자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초·중·고 자녀를 둘러싼 학습·입시·진로·생활 등 질문의 폭을 다양화합니다. 속시원히 털어놓으세요. 이메일(asjung@naeil.com)로 질문과 연락처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_편집자